경희대학교 사회논술 분석자료

안녕하세요! 우선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1. 이 자료는 20오전/오후 19오전/오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2. 경희대는 논술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예시답안과 문항 해설이 매우 자세하게 잘 되어있으며 심지어 교수님께서 논술을 직접 해설해주시는 영상까지 올라와 있는 학교입니다. 경희대 홈페이지에서 영상을 시청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그럼에도 이 자료를 만드는 이유는 학교 자체 가이드북과 영상에는 원론적이고 당연한 이야기가 대부분이라 수험생들에게 실전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통합적/다면적 사고력 같은 것들을 평가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말은 쉽지만 이런 것들을 하루이틀 안에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할겁니다.)
4. 그런데 이 자료도 당연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출을 바탕으로 자료를 작성할 것이고 본인도 경희대는 학원을 통해 준비한 것이 아닌 기출 분석을 통해 공부하였습니다. 때문에 기출문제와 예시답안을 충분히 공부하셨다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작년 합격자와 동일한 사고와 태도로 경희대 논술을 대하고 있구나 생각하며 하던 대로 쭉 이어나가 합격을 쟁취하시면 됩니다.
5. 이 자료에서는 3번 수리문항을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리문항의 중요도는 엄청납니다. 경희대 웹사이트에 탑재되어 있는 교수님 해설 영상에서 수리문항을 못 푸는 학생들이 많다며 수리문항을 완벽히 푸는 순간 합격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하십니다.
6. 이 자료를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저는 문제 출제자나 채점자가 아닙니다. 단지 합격생일 뿐입니다. 때문에 제 사고와 태도가 100% 맞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취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저런 하고싶은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항에 대해서 다뤄봅시다!

**1번문항**

[논제Ⅰ]

제시문 [가]∼[바]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401자 이상 ∼ 500자 이하: 배점 30점]

[논제Ⅰ]

제시문 [가]∼[바]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논제 1】

[401자 이상 ∼ 500자 이하: 배점 30점]

제시문 [가]∼[아]를 비슷한 관점에 입각한 것끼리 두 범주로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순서대로 20년도 사회계열 오전/오후, 19년도 오전/오후 21년 모의논술 1번 문항입니다. 19,20년은 문제가 완벽히 똑같고 21모의논술도 결국 분류/요약을 요구합니다. 1번문항의 핵심은 분류/요약입니다. 이 문제의 답안 처음 두 문장은 그냥 정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시문 (가)~(바)는 ???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다루고 있다. (가),(다),(마)는 @@의 관점이고, (나),(라),(바)는 ##의 관점이다.”**(임의로 (가),(다),(마)/(나),(라),(바)로 분류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양식은 기출에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양식입니다. 무조건 시작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한 @@관점 같이 약간의 미사어구 사용은 좋습니다.) 이 두 문장에 10점 배점의 기준이 되는 ???,@@,##이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핵심 개념어를 찾지 못한다면 경희대 논술은 떨어진 것이라고 봐야합니다. 애초에 경희대 논술이 합격자 평균이 90점 언저리로 형성되는 쉬운 논술이기도 하지만 이 핵심 개념어들이 2번, 3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핵심 개념어 찾기에 실패한다면 이후에도 계속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핵심 개념어가 2번 3번에서도 이어진다는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가)~(바)의 분류 관점과 핵심 개념어를 찾기 쉽지 않을 때 (사)제시문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1번 설명 막바지에 핵심 개념어를 찾기 위한 도구들 몇 개를 정리해드리겠지만 (사)제시문을 이용하는 것도 핵심 개념어 찾기를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분류를 하는 처음 두 문장을 쓰셨다면 이제 요약을 하셔야 합니다. 요약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성대 공부했던 때를 떠올려 보면 제시문끼리의 관계, 논리적 연결성을 밝히라고 했던 것 같은데… 경희대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요약 순서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가),(다),(마)를 순서대로 한 문장 씩 요약해주시고 이후 (나),(라),(바)를 한 문장 씩 요약해주시면 됩니다. 요약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a유형은 불안한 것이 너무 많은 친구들입니다. 한 문장을 요약하는데 수식어구가 3~4개씩 들어갑니다. 이 친구들은 한 문장 요약에 그 제시문의 모든 것을 담고 싶어합니다. 그동안 완벽을 추구하는 공부를 해와서인지 자신의 문장을 끈임없이 검열하고 허점을 찾아내려 합니다. 2019 오전 기출을 통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를 직접 읽은 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 제시문을 “전통적 사회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가사분담 문제가 현대에 와서는 가정 불화의 큰 원인으로서 작용하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합법적 수단이 제한되어 있을 시 목표-수단 사이의 괴리와 합의에 바탕을 둔 지배적 규범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고 자수 제한도 맞추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대학 측의 예시답안은 “[가]에서는 가사 분담에 대한 지배적 규범이나 합법적 수단이 정립되지 않아 부부 싸움 같은 일탈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입니다. 깔끔한 한 문장입니다. 지금 보시면서 누가 이렇게 쓰냐 하면서 비웃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 예시는 약간 과장돼 있긴 하지만 이런 문장을 쓰는 분들이 꽤 됩니다. 본인의 글도 진지하게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b유형입니다. 이 친구들은 대국민 담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추상적인 단어들을 남발하고 지나치게 거시적인 문장을 씁니다. (“과정은 평등하고 결과는 공정할 것입니다!”와 같은 문장인데 평등, 공정 같은 추상적인 단어만 사용하고 무엇에 대한 평등과 공정인지 대상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장은 청중을 감동시키는 데에는 효율적일지 모르겠으나 논술에서는 쓰이면 안되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를 “지배적 규범의 부재는 문제를 야기한다.”와 같이 요약합니다. 주체/대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보통 자신의 독해에 자신이 없을 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할 때 1. 이 문장의 주체/대상이 무엇인지. 2. 문장에 수식어구가 몇 개 존재하는 지 정도는 생각해보며 요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가]에서는 가사 분담에 대한 지배적 규범이나 합법적 수단이 정립되지 않아 부부 싸움

같은 일탈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주체/대상: 가사 분담

1. [나]에서는 천한 사생아로 낙인찍힌 주인공이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일탈을

꾀하고 있다. -> 주체/대상: 천한 사생아로 낙인찍힌 주인공

1. [다]는 비행 청소년이 유죄 판결로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정상 생활로

되돌아오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 주체/대상: 비행 청소년

1. [바]에서는 전직 소매치기가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물건을 강매하는 또 다른 일탈을 묘사하고 있다 ->주체/대상: 전직 소매치기

모두 2019오전 기출 예시답안에서 가져온 문장들입니다. 주체/대상이 드러나고 문장이 간결합니다. 너무 세세하게 요약하려 해도 안되지만 너무 큰 틀에서 요약하려 해도 안됩니다.

이제 1번문항 초반부에서 언급했던 핵심 개념어를 찾기 위한 도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어떤 핵심 개념어가 출제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출문제를 아직 풀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보지 마시고 기출 푸신 후에 보세요! 핵심 개념어 스포당해요!)

이 개념어들은 차례대로 **“제시문 (가)~(바)는 ???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다루고 있다. (가),(다),(마)는 @@의 관점이고, (나),(라),(바)는 ##의 관점이다.”** 에서 ???/@@/##에 들어가야 하는 단어들입니다. 스포당하실까봐 글자는 흰색처리 해 놓았습니다. 보고 싶으실 때 드래그 하셔서 검은색 글자로 변환해서 봐주세요!

19 오전- 일탈/아노미/낙인

19 오후- 개인과 사회의 관계/사회 실재론/사회 명목론

20 오전- 사회 불평등/기능론/갈등론

20 오후- 사회 정의/공정으로서의 정의/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21 모의- 시간/단기/장기

이제 핵심 개념어들을 찾는 도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핵심 개념어들 쭉 보시면서 감이 오셨나요? 대부분 생윤,사문에서 핵심 내용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앞으로도 생윤,사문 핵심어들이 핵심 개념어로 출제되겠죠?? **공부하셨던 생윤,사문 책의 목차 펼쳐 놓고 기출 된 개념어들 지우신 후 대비돼서 나올 것 같은 개념어를 찾아보시고 미리 공부해두세요!**
2.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시험지를 받고 (가)~(바)까지 다 읽었는데 핵심 개념어가 생각이 안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제시문(사)를 봅니다. **(사)는 대비되는 두 입장을 모두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두 관점의 중간 지점에 있는 내용일 때가 많아요. (사)를 읽으며 이 글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무엇이 생윤이나 사문에서 어떤 단원에 자리잡고 있었고 그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를 역추적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3. 그래도 생각이 안 난다면… 원래라면 포기해야 했겠지만 드디어 21 모의에서 대립 관점으로 장기/단기가 나왔습니다**. 올해 모의에서 나온 대립어가 장기/단기이기 때문에 올해 본 시험의 관점 차이도 단순 대립어일 수 있습니다. 긍정/부정, 적극/소극, 직접/간접 같은 대립어를 떠올려보세요!**

이제 2번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문항**

[논제 Ⅱ]

제시문 [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가], [나]를 평가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 배점 40점]

[논제 Ⅱ]

제시문 [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가], [나]를 비판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 배점 40점]

[논제Ⅱ]

제시문 [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라], [마]를 평가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 배점 40점]

지금까지 나온 2번 문항입니다. 모두 (사)서술, 타 제시문 평가를 요구합니다. (21 모의논술에서는 평가 후 반박까지 요구하지만 이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서술은 정확히 독해하고 핵심 개념어를 뽑아 문장을 서술하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할 말이 없네요… 이제 평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타 제시문 평가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 같은 것은 긍정, 다른 것은 부정입니다.**  (사)제시문을 기준으로 같은 입장이라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입장/양상을 보인다면 비판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경희대는 아예 비판하라고 문항을 출제한 경우도 있고, 평가하라고 출제한 문항에서도 타 제시문을 긍정하기보다는 비판이 주를 이루는 경향을 보입니다. (\*주석) 20 오전 예시답안을 보면 타 제시문과의 일치점에 대해 “한편 [마]는 사회 불평등을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정치적 불평등의 다차원으로 확장하고 있다.”라고 일치점을 소개하고 있긴 하지만 일치점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직접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치점을 소개하는 것이 채점기준에 5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19,20,21모의까지 위의 문장 이외에 타 제시문과의 공통점을 소개하는 예시답안은 없습니다. 즉 경희대에 한해서는 평가도 비판과 비슷한 양상을 띕니다. **결론적으로 경희대에서 평가 문항은 타 제시문과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비판점을 찾고 여력이 되신다면 공통점까지 찾아야 합니다**. (5회차중 1회차 빼고는 공통점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통점을 찾지 못하였다고 멘탈이 깨지실 필요 없습니다.)

**\*주석**① 제시문 [사]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했으면 10점 가점

② 제시문 [사]의 논지를 통해 제시문 [가]의 문제점을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③ 제시문 [사]의 논지를 통해 제시문 [나]의 문제점을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④ 유사한 문장을 단순 반복하지 않고 문장 간의 구성이 긴밀하고 논리적으로 연결되면 10점(표현력,창의력) 가점-19 오후 채점 기준표입니다. 평가를 요구한 문제지만 비판만 적절히 해도 만점입니다!

3번 문항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애초에 경희 사회 계열의 진입장벽으로서 작용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경희 사회를 쓰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 가지 조언이라면 생각보다 쓸 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먼저 연습지에 풀고 옮겨 적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끝입니다. 읽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히 쓰려고 했는데 너무 간단히 쓰게 되면 제 뜻이 잘못 전달되거나 하는 일이 생길 것 같아 조금만 자세히 쓰려다 보니 6페이지나 돼 버렸네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분들은 글에서 필요한 부분 수용하셔서 경희대 사회계열 논술고사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교에서 만나요! 이 글 읽고 도움 받아 합격하신 분이 계시다면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만드느라 원래 계획한 시간의 배는 썼지만 한 분이라도 이 글을 통해 합격하시게 된다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네요!!